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회 구성

교육·포교·복지 대폭 손질

北에 온실지원 작업 착수
통리원 안에 문화센터 건립

진각종이 5월초 창종60주년 기념사업회를 구성해 교육과 포교 및 복지분야 등 종단의 전방위 분야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기념사업회는 우선 장기적인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김인수 기획행정처장, 조남일 전국신도회 총무 등으로 구성된 준비모임을 통해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뒤 4월 26일 열리는 진각종 스승총회에서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기념사업회는 대략 실무간사를 포함해 6명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념사업회가 추진할 계획중 눈에 띄는 것은 대북사업의 일환인 북한 협영농장 운영건이다. 진각종은 연내로 협영농장의 전 단계인 온실지원 작업에 착수한다. 북한 만경대 건너편 두루섬 부지 10만여평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온실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진각종은 별도 예산을 확보

해 비닐하우스 공사에 필요한 파이프와 비닐 등 공사 자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통리원안에 불교문화센터도 건립된다. 종도들이 통리원을 찾아와 불교이외에도 문화와 예술을 통해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기독교와 이웃 포교의 해”로 정한 종단의 포교방침과 맞물려 경주에 있는 산내 연수원을 재정비해 주말수행센터로 탈바꿈시키는데도 전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념사업회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진언, 찬불가 등 진각종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리의 통일화 작업을 올해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각종의 한 관계자는 “기념사업회의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은 5월중순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올해 초부터 기획국의 예산에 기념사업회의 예산도 편성해 놓아 별도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법륜종 5대 총무원장

고산 스님 취임법회

한국불교법륜종은 4월 20일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제5대 총무원장 고산 스님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정각 스님, 사정원장 혜우 스님을 비롯하여 종단임원 및 종도, 불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고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전 종도가 화합해 한국불교의 중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선교종 8대 총무원장

범우 스님 취임법회



대한불교일부선교종은 4월 19일 세검정 하림각에서 제 8대 총무원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종단임원 및 종도와 불자 6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8대 총무원장에 취임

한 범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 창종 주인 일봉 큰스님의 가르침을 한시라도 잊지않고 계승 발전시켜 전통종의 단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삼통사 합창단

4월26일 창단 연주회

천태종 삼통사는 4월 26일 오후 7시 중랑구민회관에서 합창단 창단연주회를 봉행한다.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도 참석할 이번 음악회에서 삼통사 합창단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경사로다’ 등 9곡을 음성공양 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삼통사 풍물단과 국악인 이주희씨가 찬조 출연한다.

정종해 단장은 “10년전부터 합창단이 결성돼 사찰내 법회 행사에만 참여해 왔는데 이번 정식 창단을 계기로 외부 행사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496-3839 김주일 기자

천태종 결식아동 릴레이 후원

대한불교 천태종 복지재단은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들을 위해 후원자 3명이 1명의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결식아동 3:1 릴레이 후원 사업’을 진행한다.

후원금액은 1만원~3만원이며, 후원금은 사찰 인근 학교 빈곤지역의 초중고교 결식 학생들에게 급식비로 전달된다. (02)575-3467 김주일 기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군포교 보시금 전달

통합병원 주지법사 위촉 앞장서기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사가 공동으로 ‘2006년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가 모금을 통해 모은 보시금 1,260만원을 군포교에 써달라며 4월 19일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기탁된 1260만원은 명성 스님이 군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며 500만원을 회사하자 스님의

뜻을 이어 운문사 대중이 500만원, 운문사 삼직 스님과 중강 스님이 140만원, 운문사 학인스님들이 100만원, 운문사 문수선원 해은 스님과 용운문 주지 성호 스님이 각각 10만원을 기탁해 모아졌다.

명성 스님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작은 돈이지만 비구니 스님들의 마음이 모아진 소중한 보시금”이라며 “향후 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군포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을 유도하겠다”고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왼쪽)이 4월19일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에게 보시금을 전달하고 있다.

말했다. 이에 대해 계성 스님은 “비구니회 회장 스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니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서는 군종특별교구 부주지 계성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에게 전국 15개 통합 병원에 비구니 스님을 주지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 15개 통합 병원에는 의무사령부 의왕사에 유일하게 군법사가 배치되어 있을뿐 나머지 통합 병원 군법당은 군종병조차 없는 실정이다.

명성 스님은 “이미 각 사찰에 공문을 보내 군병원 주지 법사를 모집하고 있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몸이 아파 군생활을 못하는 장병들의 약사보살이 되어 군포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금강경으로 마음에 평온을”

송강 스님 금강경 테이프·책 기증

장수 문화산 도성암 주지 송강 스님(사진)은 4월 20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와 본지가 펼치는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이 제작한 금강경 엮음테이프 2,000개와 선문출판사에서 출간한 <금강경> 400부를 보내왔다.



송강 스님은 “포교에 첫 발을 내딛을 때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는지는 현세에서

일체 번뇌망상과 괴로움을 여의고 내세에서 극락왕생케 해달라고 서원했다”며 “금강경을 듣고 군 장병들이 마음의 평온을 얻고 군생활 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강 스님은 부처님 오신날 이후 예불과 천수경 등의 엮음 테이프를 제작해 군법당에 보시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스님은 또 금강경 테이프 1만개 제작해 엮음을 듣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테이프를 무상 보시하고 있으며 <금강경> (선문출판사) 판도 자비로 500원, 한소리레코더사 유병직 사장의 보시로 500원 등 총 1000원을 구매해 엮음테이프와 함께 보시하고 있다. 011-362-9912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인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스님이 만든 군가는 어떨까

설봉 스님 현역 장병과 CD출반

도예가로 명성이 자자한 설봉 스님(사진)이 20년간 해병대 포교를 하며 느꼈던 사막한(?) 군가를 대체할 군가를 작사·작곡했다.



5월 음반 발표를 목표로 작업과 연습을 병행하고 있는 설봉 스님은 국방 역사상 처음으로 12면의 현역장병들과 함께 그룹 ‘설봉 스님과 빨간 명찰들’을 결성해 군가를 노래한다.

설봉 스님의 신곡 군가는 타이틀곡 ‘길 없는 길’을 따라 ‘해병은 간다’를 비롯해 ‘조국에 버치는 해병의 노래’ ‘해병 훈’ ‘해병은 만들어진다’ ‘해병대 입대할 때’ ‘해병대여 영원하라’ ‘해병 기질’ 등 7곡이다.

“이번에 제작한 군가는 일반 행진곡에서 진일보한 나만의 개성을 담았어요. 신세대 해병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라틴계열의 경쾌한 리듬으로 작업했지요.”

12명의 노래실력이 출중한 현역장병들을 뽑아 6개월 전부터 신곡 군가를 연

습 해왔다. “20-23세 젊은 아이들 속에 불교의 힘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 작업을 했다”는 설봉 스님은 “불교를 내세워 포교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불교를 느끼게 할 때, 불교의 힘을 느끼게 할 때 포교가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의 포교론을 펼친다.

도예로 유명한 스님이 작사 작곡 했다는 것이 신선하다는 질문에 스님은 “어렸을 때 출가하려고 하니 재주가 너무 많아 안 된다고 어른 스님들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면 안되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재주를 대중들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매달려서 간신히 출가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음반을 내기위해 군부대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설봉 스님은 “음반이 나오면 신병훈련소와 백령도 등 해병대가 있는 부대에 직접 다니면서 공연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연 기자

만인 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교 혁명시대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증인 석주큰스님 학술세미나

석주스님
학술세미나 초청장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석주당정일대종사께서 육신의 탈을 벗으신지 어언 2개 성상에 접어들어,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셨고 역경불사와 불교발전 그리고 포교활동에 평생을 헌신하신 큰스님의 업적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후학들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뒤늦게나마 18년간 조실로 주석하셨기에 봉은사에서 그 장을 만들었습니다.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평소 큰스님을 흠모하셨던 각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뜻 깊게 봉행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0년 4월

석주스님 문도대표 월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래 拜上



- 주제 : 근·현대 한국불교의 산증인 석주큰스님
- 일시 : 2006년 5월 1일(월요일) 오후 1시
- 장소 : 봉은사 법왕루
- 주최 : 봉은사, 불교신문사
- 후원 : 중앙승가대학교, 석주스님 문도회

세미나 주제 및 내용

- 법 어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 발표 1 :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스님 기초발제
- 발표 2 : 석주스님과 근현대 한국불교
 - * 발표 = 김광식 박사
 - * 토론 = 김선근 (동국대 교수)
- 발표 3 : 포교와 사회복지에 끼친 석주스님의 영향
 - * 발표 =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
 - * 토론 = 능인스님(중앙승가대)

봉은사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문의: 02-3218-4801~5